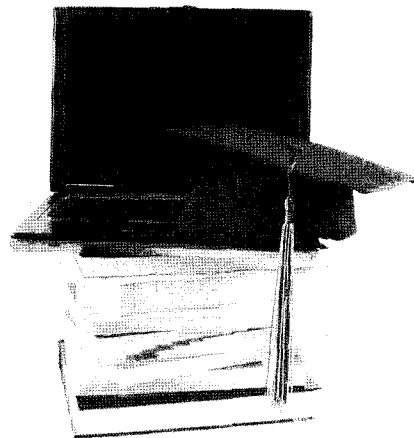


대학 교육과정과 수업의 개선 과제*

홍 후 조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대학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인간사회의 모든 변화의 근본은 인구구조, 기술, 가치관, 생태환경의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 저출산 고령화는 대학생인구의 구성을 성인학습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으로의 인재유출 등으로 대학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IT 컨버전스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U러닝을 가능하게 하여, 사이버대학의 창궐을 예시하고 있다. 세계화 다문화 다원화 다양화는 규범적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교육의 가치변화를 상대화, 포스터모던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구생태환경, 자연환경과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 사태, 일본 원전 사태와 같은 과학기술의 부작용, 신종 플루와 같은 지구촌의 위기대응능력의 한계, 지진과 태풍 등 지구촌의 생태위기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전을 요구한다. 대학교육은 이런 환경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현 위치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에서 잘 드러난다. 정치 경제에서 민주화와 압축 성장을 달성한 것처럼 대학교육도 단기간에 확대되었다. 우리 대학들은 일제하 교육구국의 이념으로 설립되고, 독재정권하에서는 민주화운동의 기지 역할에 여념이 없어 진정한 의미의 학문, 교육, 봉사를 하는데 제약을 받아왔으며, 이런 거창한 역할이 사라진 현재에는 학생 개개인이 취업을 하는데 기여해야 하고, 기업과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실제적인 역할로의 변경을 요청받고 있다.

대학교육은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향상은 뒤쳐져 있다. 학생 89%, 학부모 93%는 “4년제 대학은 나와야”한다고 보며, 역할이나 적정 수학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이 대학교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평균의 2.2배이고, 시간강사가 대

학교교육의 36%를 담당하고 있다. 조기유학과 함께 해외대학진학과 박사학위취득자의 체류도 늘고 있다. 교과목의 산업일치도가 낮은 편이어서, 산업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양성은 부정합을 보이고 있어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대학편의로 학과와 교과목을 설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 교육과정은 교수 개인의 권위와 교수간 타협의 산물로서 직역(職域) 이기주의적 강좌 개폐가 적지 않다. 이것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일정한 절차, 규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수업은 여전히 폐쇄적이다. 수업의 내용이나 그 평가결과도 공개되고 있지 못한 편이다. 초중등학교 교원들은 누구나 교직과목과 교과목의 교수학습방법을 공부하지만 대학 교수는 교수학습방법의 기초도 배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생, 교수, 학문과 지식 및 기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교수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초 지식이고 기술이다. 효과적인 수업준비, 수업운영전략, 수업에서 상호작용방법, 학습동기유발과 지속법, 수업기기의 활용법, 과제와 시험의 효과적 활용 등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익히고 교수되는 사람은 드물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대학수업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대학 교육과정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만 열거해보기로 한다.

2. 대학 교육과정과 수업의 질 향상 과제

국내 대학생 인구감소와 세계적인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세계화에 따른 대학교육의 개방화, 사이버대학을 비롯한 대학교육의 공개 확대, 과학기술과 학문의 융복합화의 가속화, 대학이 풀어야 할 지구촌 사회의 문제의 증가 등에 대처하는, 대학 교육과정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과제를 풀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준 확립이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보편타당한 지식을 추구하면서도,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나라의 영향도 함께 받는다. 대학 교육과정과 수업의 질 향상을 기약하려면 최소한 세 수준에서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의학, 공학(건축학)처럼 어떤 대학이나 학과의 교육과정 기준은 '세계적 수준'에서 인증기준이 만들어져야 하고, 동아시아학 같은 것은 '지역적 수준'에서 표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한국학 관련 학문은 '전국적 수준'에서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즉 개별 대학, 학과, 교수가 임의로 표준을 만들어서는 대학 밖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개별 대학 차원이라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처럼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에는 일정한 표준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부 중심과 대학원 중심의 대학 간 역할분담과 특성화의 추구이다. 단기대학과 대다수 대학은 학부교육에 치중하고, 소수대학은 대학원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된

다.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비대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전체적으로 대학간 전공간 구조 조정과 정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할분담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즉, 한정된 교수, 시설, 재정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요청된다. 졸업생의 90% 이상이 취업하는 일부 대학과 한동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처럼 특성화된 교육 및 선택과 집중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맞춤형, 지역기반형, 융복합형, 수요자맞춤형 대학교육은 기능별 역할분담이 뚜렷할 때 가능해진다.

셋째, 대학 교육과정의 전체 기준과 틀의 확립이 요구된다.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틀은 각 대학의 특성화된 목표에 따라 특정 특성을 지닌 입학생을,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거치게 함으로써, 특정 특성을 지닌 졸업생으로 길러내는 전체 설계도이다. 대학졸업인증제를 통해 대학을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모습(품성과 능력)에 대한 뚜렷한 상(像)을 잡아야 한다. 전공별 적정 졸업 이수학점, 교양-전공, 집중이수, 부전공, 연계전공, 복수 및 이중전공의 배분, 전공의 분화와 통합, 이론과 실제의 통합이 요구된다. 특히 대학졸업후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완성도 높은 교육과정과 수업 제공은 절실히 필요하다. 한정된 기간 안에 복수전공, 이중전공과 같이 더 많은 전공을 하려고 하기보다 전공에 연계되는 영역과 학습을 보다 체

계적 학습방법이 요청된다. 필수와 선택의 구분을 임의로 하기보다 관련 학회 등 전국 단위 학문 공동체의 협의를 거쳐 학과나 전공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필수로 지정하는 협동적 노력이 요청된다.

넷째, 대학교육의 질 관리 주체의 확립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 안에 교육과정 전체를 질 관리하는 주체가 없거나 미약하다. CTL을 통해 교수학습에 대해서는 점차 질 관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교육과정은 많은 경우 교수들간의 타협의 산물로 임의로 개폐되고 있다. 전공의 설패, 졸업 이수 학점의 규정, 교양과 전공의 이수 비율, 복수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등에 대한 결과적 규정은 있지만, 학과별, 전공별, 대학별 교육 과정에 대해 정책과 의사 결정, 기준과 교재의 연구 개발, 운영 관리, 평가 개선하는 과정을 질 관리하는 주체는 불분명하다. 특히 대학교육을 밖에서 질 관리하는 주체가 없거나 미약하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육과정은 대학 '전체' 차원에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구성되기보다 교수별, 학과별, 전공별, 대학별 요구를 수합하여 적절하게 짜집기한 형태(patchwork curriculum)가 되어 있다. 아울러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체계성 확립이다. 무전공제, 학부제 등으로 인하여 편의적 수강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 풍토, 학업 유랑(academic drift)이다. 주당 15학점을 15시간의 강의와 30시간의 자기 주도 학습을 기본으로 한 학

접체에 맞는 학습량 확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학의 규모에 맞는 적정 수의 전공과 학과의 유지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대학 학부에서 완성교육, 직업교육, 전문교육을 지향하여 학과(department)단위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와 단일학문 위주의 전공(major)이 대종이다. 대학원 교육이 미발달한 시대의 유산이다. 2년제는 약 2,500개, 4년제는 약 3,500개의 서로 다른 이름의 전공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동류로 융복합하여 더 정리될 필요가 있다. 물론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경우 기업의 맞춤형 교육과정과 수업을 유지해야하므로 그 수가 많을 수 있다. 미국대학들을 보면 학부중심이든 대학원중심이든 대체로 단일전공과 간학문적 전공을 합쳐서 100개 이하이다. 세부적인 전공과 학과 설치 기준과 근거는 부족한 편이다.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어떤 것이 전공으로 제공되며, 전공으로 제공되더라도 반드시 학과단위로 제공될만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가 부족하다.

여섯째, 대학 교육과정 및 수업 연구 개발 및 운영의 대학간 협조 확대이다. 개별 대학의 폐쇄적, 영세적 운영으로는 적은 교수수, 많은 설치 운용비용이 드는 실험 실습 실기 위주의 학과나 대학들에서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별 전공별 교수별 특성화된 강좌 개설과 함께 대학간 교류를 열어 두어야 한다. 원적교와 함께 일정한 교류를

맺은 대학의 교수 수업 자원을 통해 졸업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학간 역할 분담을 통해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기술의 발전 및 시설과 설비의 구비 및 공동 활용이 요구된다. 대학간 교수들이 풀(pool)을 형성하고 협동적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에라스무스제도는 결국 개별 대학의 역량보다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데 전체 유럽대학이 협력하는 것이다.

일곱째, 직업 준비 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이다. 누구나 공식적인 최종 교육은 직업준비교육이다. 대학의 직업기술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입학에서 재학 중 학업 과정, 졸업 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산업체의 요구와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하여 학생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해주기 위하여,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기초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산학연계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과 현장적응력을 함양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직업 준비 과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실험, 실습, 실기를 위한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 제공할 필요성이다. 결국, 직업 준비 교육은 완성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진학준비교육은 계속 교육과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적절한 분화가 요구된다. 직업 기술 교육을 철저히 하여 중견 관리자급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업 수요에 부응한 교육, 현장 지향적 교육, 특성화된 교육을 수행하되, 1학년의 교양, 2-3학년의 전공교육, 4학년의

실습으로 짜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 및 팀 프로젝트를 통해 2-3학년에서 익힌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졸업작품과 공모전에 대비하여 개인별, 소집단별로 관심있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정하여(졸업작품설계, Capstone Design), 그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개념 설정과 진행 계획, 평가와 반성의 일체 과정을 통해 창의적 적용력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4학년에서는 어떤 학과이든 결국에는 연습과 사례 연구, 현장 실습과 현장체험, 현장실무, 예비취업과정, 산학실무 프로젝트, 졸업 프로젝트 강좌로 마무리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이다.

끝으로, 국내 대학원의 고급 인재 양성 체제 구축과 학문적 독자성 추구이다. 대학원에서의 새롭고 유익한 지식생산이 대학교육을 견인해준다. 우리대학에 만연한 낮은 학문적 자신감, 해외 생산 지식의 번역과 중개, 외국 학자의 권위 덧입기, 영어로 교수하는 교수, 관례적인 통과의례로 외국 유학을

선호, 고급 두뇌의 유출과 고급 두뇌의 해외 의존 양성 심화, 교육역조 심화, 첨단 학문 발전 선도자 부족, 첨단 고가 실험 설비 부족 등은 학문적 자립과 선도적 지식 생산을 가로막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과 경제발전에 맞는 대학의 창의적 지식생산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핵심 역량을 지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이상에서 학생과 교수의 지식과 기술 수준향상과, 수평적 사고방식과 대인관계 등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요약컨대, 향후 대학 교육과정은 학문의 성격에 따라 세계공통의, 지역공통의, 국가공통의 공인되는 교육과정을 객관적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업공개(OCW), 초임교수들의 경우 교수학습강좌의 수강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개방된 공인된 교육과정과 수업만이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견인할 수 있다.

필자소개

홍후조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교육과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조정위원, 인하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